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교육부 광고
교육부에서 Canned Food Drive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기간 :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 Honduras, Las Flores (최 문재 선교사)
사역 : 의료, 심방, 전도, 어린이
- 다음 주일(11 월 19 일)은 자녀들과 함께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마다 감사 제목을 상징하는 징표를 상의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 오후 7 시 본 교회에서 Pleasantville 지역 교회 연합으로 추수감사 찬양예배가 열립니다. 세광교회 성가대도 "추수감사의 노래"로 예배를 섬깁니다.
- 오늘 친교후 보드회의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친교후 예결산위원회 모입니다.
- 심방 중입니다. 친교실의 심방 일정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 동정
이미경 자매 남편 되시는 Mr. Aram Karibian(72) 께서 지난 화요일 11 월 7 일 오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쉬시다가 부활의 날 다시 만날 소망이 유족들에게 힘이 되길 원하며 위로의 하나님께서 슬픔 중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례식은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 11 월 15 일(수요일) 오전 10 시.
St. Mark's Church, 15 Garden Court, Cranston, RI.

2017 년 11 월 안내 : 신 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 민 흥기 집사 / 시편 123 편

이번 주 친교 : 안 정자 권사 / 김 경화 집사

다음 주 친교 : 전교인 (추수감사주일) Blessings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46 호

2017 년 11 월 12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예배순서

2017 년 11 월 12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87 장(통 87 장) "내 주님 입으신 그 곳은"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70 편 김 현정 권사

찬양(Choir) "음 성"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통독 (Scripture Reading) 렘(Jer) 24:1-7; 29:1-14; 31:31-33 인도자

설교 (Sermon)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582 장(통 261 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최문재(혼두라스)

2017. 11. 5. 주일 설교 요약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왕하 25:27-30; 왕상 8:46-53; 신 29:29; 30:1-8)

열왕기는 나라가 망한 시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멸망한 이유에 관한 정직한 자기평가서입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도 언약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마지막은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37 년만에 바벨론 왕에게 긍휼을 얻어 석방되고 먹을 걱정을 더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장렬한 멸망도 아니고 점령국 왕궁의 볼모 신세로 겨우 목숨을 건진 이야기입니다. 냉소적인 자조일까요? 정말 이 정도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걸까요?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 8 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읽게 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법궤를 모신 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을 두겠다는 약속대로 성전을 향해 올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면 그곳에서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야긴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솔로몬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의 참담하고도 딱딱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여호야긴에게 베풀어진 긍휼이 별개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범죄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미 경고되었고 마땅한데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가 별 것 아니어도 주신 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니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 없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지만 주님이 목자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열왕기의 마지막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철저히서서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백성을 벌하신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여전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실은 이미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든 율법을 주신 후에 경고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며 간구하면 회복시키시겠노라는 말씀을 이미 천년 전에 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여호야긴이 받은 작은 긍휼은 온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여전히 소망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열왕기의 마지막을 예견하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잊지 말라는 것보다는 -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긍휼을 잊지 말라는 호소이며 격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일한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도, 범죄하기 이전의 순수했던 시절도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과거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이리실 수는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지껏 내가 알던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을, 하나님께 관한 내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더욱 진실하고 의미있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을 청구하듯 요구하던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듣는 기도로 변화하기 원합니다. 작전지시 내리듯 나를 도우라는 기도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이나고 물으며 가자는 데까지 가겠노라는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포로된 백성을 돌이키시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